국악 세계화에 앞장선 '보성소리' 명창

故 성창순의 소리 세계

광주 금남로 5가에서 태어나
당대의 명인들에 소리 사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지정
광주시립국극단장 등 활동
심청가·춘향가·흥보가 등 완창
국악인 첫 美 카네기홀 무대에
자기만의 '보성소리' 만들어내

"너는 소리 도둑년."

고(故)박녹주 명창이 소리 공부를 하러 온 젊은 시절 성창순에게 던진 말이다. 소리 욕심이 많았던 성씨는 당대의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여정은 김연수(심청가), 김소희(심청가), 정응민(춘향가·심청가), 박녹주(흥보가) 선생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소리 인생은 자서전 '넌 소리 도둑년이여'에 나와 있다.

5일 타계한 성창순(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명창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보성 소리의 맥을 이으면서 자신만의 '보성소리'를 만들어낸 진정한 소리꾼이었다.

1934년 광주 금남로 5가에서 태어난 그녀의 집안은 국악과 인연이 깊다. 아버지 성원목은 국창 김창환 문하에서 소리를 배우고 광주에서 창극단 활동을 하던 명인이었으며 외삼촌인 한일섭은 1950년대 민속음악 아쟁 산조를 창제했다.

어머니 한일예씨의 손을 잡고 창극을 보러 다니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창극 배우가 되려는 꿈을 키워갔다. 10대 소녀시절 광주 북동에 살던 공기남 선생에게 처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정응민 등 당대의 명인들에게 소리를 사사했다.

김연수 창극단, 여성국극단 등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1968년 한국국악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명창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받으며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1978년 제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으로 대통령상, 1982년 KBS 제1회 국악대상 판소리상, 1994년 화관 문화 훈장 등을 받았다.

199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지정됐으며 광주시립국극단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1977년 '심청가'를 완창한 이래 '춘향가', '홍보가' 등도 수차례 완창해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국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또 판소리 사설을 이해하려면 한문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우전 신호열 선생에게 한문과 서예를 배워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등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스승인 정응민 선생의 생가 등이 자리한 보성 판소리 성지공원에 판소리 예술관을 짓고 판소리 전수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성창순의 소리는 여성적인 애절함과 아련함이 특징인 서편제의 맥을 이으면서도 여기에 시원한 음색과 박력있는 창법으로 그만의 '보성소리'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와 여러 차례 공연을 가졌던 송순섭(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명창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자란 성선생은 소리 뿐 아니라 글도 잘 쓰신 분이었다"며 "지난 9월에도 경복궁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9일 오후 2시 장지인 보성 판소리성지공원에서 열리는 영결식(장례 집행위원장 정회천 전 국립창극단 단장)은 국악인장으로 치러지며 추모공연도 개최된다.

한편 이번 성 명창의 타계로 국가 무형무형재 제 5호 판소리 보유자는 모두 4명으로 줄었다. 송순섭(고흥·적벽가), 박송희(화순·흥보가) , 남해성(광양·수궁가), 신영희(진도·춘향가)씨로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일 타계한 성창순 명창의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어수선한 세상…이왕에 취하려면 햇빛에 취하자"

광주여성문학동인 시누대 동인집 '햇빛에…' 펴내

"세상이 어수선하니 어디에라도 취해야 세상이 정돈될 것 같다. 이왕에 취하려면 햇빛에 취하고 싶다."

광주여성문학동인 시누대가 최근 스물여덟 번째 동인집 '햇빛에 취하다'(예원)을 펴냈다.

시누대는 지난 1987년 결성된 이래 거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집을 발간해왔다. 시, 동시, 소설, 수필, 평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중견 작가들로 구성된 시누대는 그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작품집에도 활발하게 글쓰기를 하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실려 있어, 장르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시에는 김경선·김선·김정희·백추자·신정숙·윤미순·윤혜옥·이겨울·전숙·허갑순 시인의 작품이, 동시에는 김옥애 시인의 글이 실려 있다. 수필에는 박선님·오경심·최은정·최정자 수필가의 개성적인 작품이 수록돼 있다.

소설은 김민라·서용좌·최문경 작가의 단편이 상재됐으며, 평론은 소설가인 전남대 이미란 교수의 글이 실렸다.

전숙 회장은 머리말에서 "무한히 퍼주고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햇빛에 기대어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상처 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간 의미를 말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호른사운드

호른 앙상블의 애니메이션 메들리 'Gwangju Horn Sound'

'천원의 낭만' 오늘 문예회관

호른 앙상블이 들려주는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

'제81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9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Gwangju Horn Sound'를 열며 올해 첫 공연을 시작한다.

'광주 호른사운드'는 다양한 음색과 폭넓은 음역을 지녔지만 쉽게 접하지 못했던 호른의 매력을 알리기 지역의 호른 연주가들이 모여 결성한 앙상블 단체다.

이번 공연은 연주와 해설이 함께 어우러진다. 영화 '미션'의 삽입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비롯해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애니메이션 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지휘를 맡은 장현룡씨는 독일 쾰른국립음대에서 폴 반 젤름을 사사하고 이태리 페루지아 시립 음악원 디플롬 오케스트라, 몬테풀치아노 판 첼름 쿠어스디플롬에서 협연했다.

한편, '천원의 낭만' 공연은 광주시,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하며 매달 두번째 월요일마다 열린다. 입장료 1000원.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gjasia.org) 참조.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도 영화 '런치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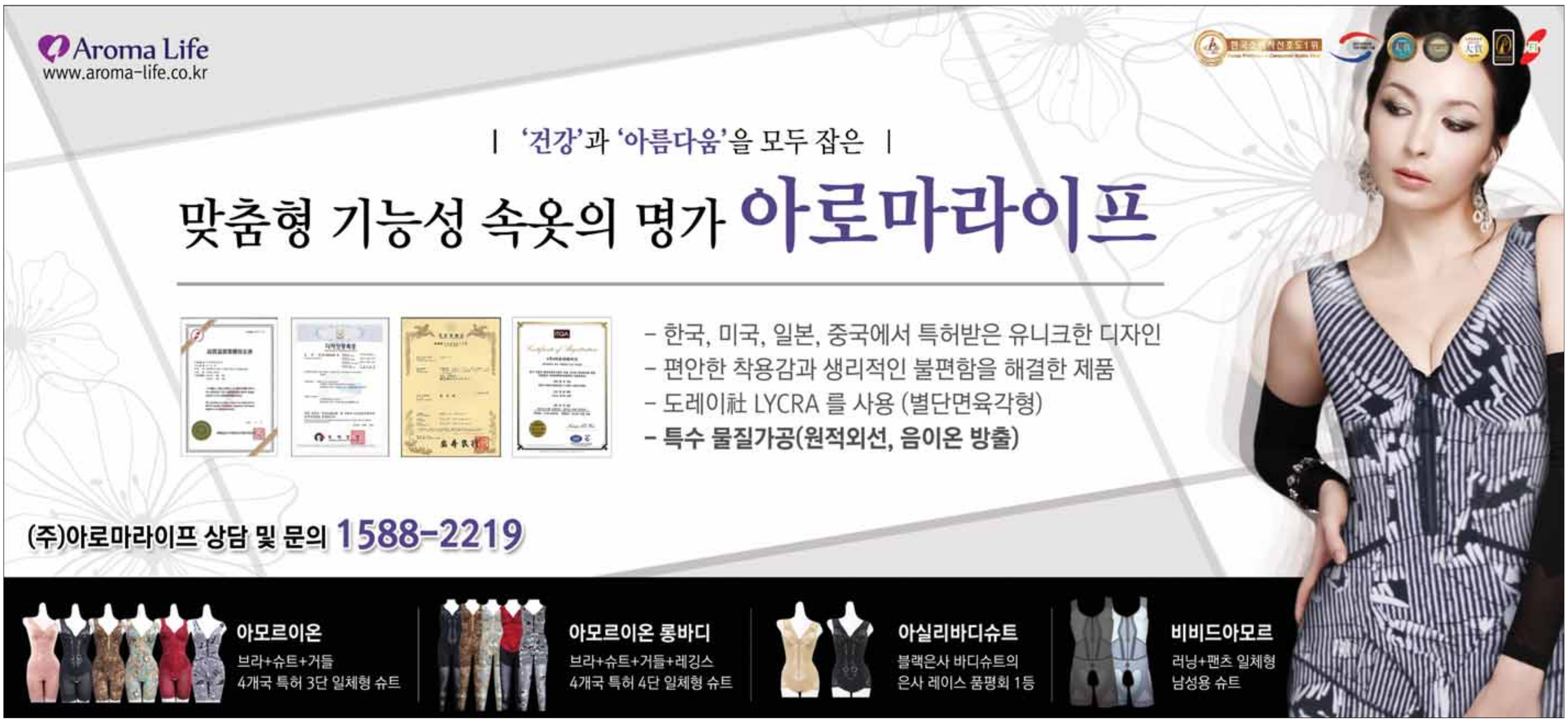
1960~80년대 추억의 영화 다시보기

광주정보문화진흥원 매주 수·목 '2017 청춘극장' 무료 운영

1960~8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12월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6층 G시네마)에서 '2017 청춘극장'을 무료 운영한다.

첫 상영작(11·12일)은 임시완·고아성 주연의 '오빠생각(감독 이한)이다. 6·25 전쟁 당시 결성돼 전장과 군 병원 위문을 시작으로 미국·유럽·일본·동남아까지 순회공연을 이어갔던 어린이 합창단 실화가 소재다. 합창단을 만든 군인 한상렬은 임시완, 자원봉사자 박주미는 고아성이 맡았다.

18·19일, 25·26일에는 인도영화 '런치박스'를 상영한다. 잘못 배달된 도시락을 통해 우연히 만난 두 남녀 이야기다. 이어 '대호'(2월 1·2일, 8·9일), '버틀러 : 대통령의 집사'(15·16일, 22·23일)'가 관객들을 만난다. 3월 상영작은 추후 공지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춘극장은 매년 추억의 영화와 최신작 등 60여편을 상영해 왔으며 월평균 400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gvcc.or.kr) 참조. 문의 062-350-93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